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환아들을 위한 여름방학 선물 나눔 행사가 8월 18일 신관 1층 로비와 어린이병원 병동에서 진행됐다. 이날 진료 및 검사 등을 위해 우리 병원을 찾았거나 입원 중인 환아들은 레고 선물을 받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신관 1층 로비에서 환아가 장난감 선물을 고르고 있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_____ 소속: _____
전화번호: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미엄 죽전문점
'본죽'**

"가장 속편한 행복"
죽전문점 본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낙지김치죽



11,000원

전복죽



13,000원

위치 : 신관 지하 1층

영업 시간 : 오전 7시 30분 ~ 오후 8시

(토요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매주 일요일 휴무

주요 메뉴 : 삼계전복죽(16,000원), 전복죽(13,000원),
쇠고기야채죽(11,500원), 동지팥죽(10,000원),
단호박죽(10,500원), 새우죽(9,500원)

추천 메뉴 : 열큰한 낙지김치죽(11,000원)

문의 : 02-3010-6420

※ 외래식당가 포장 판매, 직원 10% 할인
(사원증 또는 사번 제시 후 이용 가능,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 적용)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스카이라운지 에메랄드
코스 식사권(160,000원)
이은복(수술간호팀)

스카이라운지 이용권(70,000원)
박소영(응급간호팀)

원내 식당 이용권(30,000원)
김다혜(심장병원간호팀)

양슬기(영상의학팀)
이정아(수술간호팀 D로젯 유닛)
조홍주(중앙공급팀)

아로마틱 핸드 워시
(50,000원 상당)
김민주(중앙공급팀)
한미진(진단검사의학팀)

달마이어 이용권(10,000원)
고다혜(수술간호팀)

엄숙화(외과간호2팀)
이상아(마취통증의학과)
조광훈(시설팀)
현은진(영상의학팀)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3년 9월 15일(일)
발표 제710호(2023년 10월 1일 발간)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08 2023. 9. 1



가을의 문턱에서... 책으로 잇는 또 다른 소통

소통 모임이다. 함께 책을 고르고, 읽고, 기억에 남는 구절과 감상을 공유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동료와의 공감대가 두터워진다. 아카데미는 소통과 협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9년 북살롱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의사와 일반직 등 총 60명이 북살롱 회원이다.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를 뒤로 하고 신관 7층 옥외 휴게실에서 만난 영상의학팀 조아영 사원, 아카데미운영팀 장효정 사원, 병리와 정지선 임상강사, 응급간호팀 이진아 주임, 대외협력팀 이민주 주임, 암병원간호1팀 유민정 대리, 영양팀 최숙영·김준경 주임(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함께 고른 책 '잇다르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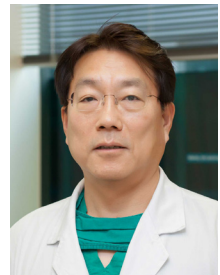
올 가을 우리 병원에 10개의 북살롱이 열린다. 직
종 간, 부서 간 벽을 넘어 책으로 만나는 또 다른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 02 NEWS 스텐트치료 시 초음파·광학단층촬영 모두 안전
- 12 이야기가 있는 산책 정원을 가꾸는 데서 얻는 이익
- 06 AMC IN(人)sight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 20 문화·생활정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이모저모

스텐트치료 시 초음파·광학단층촬영 모두 안전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 혈관 내 병변이 복잡할 경우 혈관 내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영상기구가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혈관 내 초음파(IVUS)와 혈관 내 광학단층촬영(OCT)이 사용되는데 어떤 기구가 더 안전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다. 최근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박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를 혈관 내 영상기구 종류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를 이용한 환자 1,003명과 광학단층촬영을 이용한 환자 1,005명 등 두 집단으로 나눴다. 연구팀은 두 집단 간 1년 내 심근경색이나 허혈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심장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등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혈관 내 초음파를 이용한 집단에서는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이 3.1%, 광학단층촬영을 이용한 집단에서는 2.5%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시술 관련 합병증도 각각 3.7%, 2.2%로 양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영상기구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은 두 집단 모두 한 건도 없었다. 유럽심장학회 메인 세션에서 연구 결과를 직접 발표한 박덕우 교수는 “먼저 개발된 혈관 내 초음파가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었으며, 광학단층촬영은 소규모 연구로만 안전성이 입증된 상황이었다. 이번 연구로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이 연간 3% 이내로 기구 간 차이 없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심장학회 공식학술지 '서큘레이션'에도



안정민 부교수



강도윤 부교수

덕우 교수, 안정민·강도윤 부교수팀이 두 기구 간 치료 경과를 비교·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심장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 메인 세션에서 8월 27일 발표했다.

이동시 게재됐다. 동시 게재됐다.

눈앞 뿌옇게 보이는 '중심장액망막병' 발병기전 밝혀



이준엽 부교수



김수진 연구원

망막 안에 물이 차는 중심장액망막병은 30~5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대에서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물체가 휘거나 실제와 색이 다르게 보이는 질환이다. 최근 안과 이준엽 부교수, 김수진 연구원팀이 중심장액망막병의 발병기전을 밝히고, 질병의 경과나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아 급성 중심장액망막병 환자 42명과 일반 대조군 20명의 안구

내 방수 내용물을 채취해 방수 엑소솜을 확인한 결과, 특정 마이크로RNA인 마이크로RNA-184(miR-184)가 일반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치료에 반응이 적은 환자에서는 miR-184 발현량이 더욱 증가한 상태였다. 연구팀은 환자의 방수에서 miR-184 발현량을 정량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해 확인한 결과, 중심장액망막병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miR-184가 100배 이상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연구팀은 miR-184가 혈관내피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관여하는 STC2 유전자 발현을 조절했고, 그 결과 신생혈관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바이오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나노생명공학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

국내 첫 피부림프종 통합진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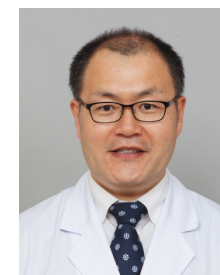


암병원 피부림프종 통합진료팀 의료진이 중증 피부림프종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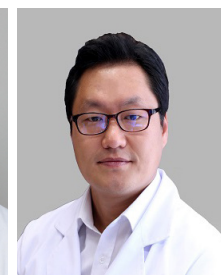
우리 병원 암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피부림프종 통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진료를 시작했다. 피부림프종 통합진료팀은 피부림프종이 진행돼 치료가 까다로운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최적의 맞춤형 치료 방향을 빠르게 수립하기 위해 피부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관련 의료진이 모여 암통

합진료센터에서 환자를 진료한다. 통합진료팀은 피부과 이미우 교수·이우진 부교수, 종양내과 윤덕현 부교수·조형우 조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송시열 교수, 병리과 박찬식 교수로 구성됐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림프구 중 피부 림프구 세포가 악성으로 변해 생기는 피부림프종은 환자 수 자체가 적다 보니 의료진에게도 생소해 습진이나 건선, 아토피 피부염 등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조기 진단 시 자외선 광선치료, 국소치료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나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피부의 악성 림프구 세포가 림프절 등 다른 곳으로 전이돼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피부림프종 통합진료팀은 관련 진료과 의료진이 한 곳에서 피부림프종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신속하게 세울 수 있다. 또한 환자가 병원에 여러 번 방문해 여러 진료과의 전문의를 찾지 않고 한 번에 맞춤형 치료 방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회절 단층촬영으로 세포 전처리 변화 분석



백찬기 교수



김준기 부교수

융합의학과 백찬기 교수, 김준기 부교수팀이 광회절 단층촬영(ODT) 기술을 이용해 세포 외부의 침습적인 조직에 따른 세포 소기관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ODT 기술은 세포 내부로 빛을 쏘아 산란된 빛을 수집하고 표준 광원을 이용한 홀로그램 방식으로 3차원 영상을 재현하는 기술이다. 세포 소기관의 굴절률과 부피 등 다양한 물리적 정보를 정량적으로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 세포의 미세 환경 및 세포 내 생물학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구팀은 ODT 기술을 활용해 세포 고정, 온도 변화, 형광 염색,

유전자 조작 등 다양한 세포 전처리 과정이 헬라(HeLa) 세포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처리 과정에서 세포의 본질적인 특성이 손상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세포를 고정하거나 온도를 높임에 따라 세포 소기관의 굴절률 값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세포핵과 달리 세포질과 소기관 등 세포 내부 구성 요소들이 상당 부분 소실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형광 염색을 위한 세포 고정과 특정 녹색형광단백질(GFP) 유전자 발현은 세포 밀도를 변화시키며 GFP 유전자는 화학적 형광 염색보다 세포 소기관의 굴절률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분석화학 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연구에 사용된 헬라세포 소기관 3차원 영상이 표지로 선정됐다.

독서모임으로 직원 간 소통 기회 넓혀



복합종 참가자들이 8월 24일 열린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 병원은 다양한 직종과 부서의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직원 독서모임 '복합종'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조는 의사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다. 리더 1명과 4~5명의 팀원이 한 조가 되어 함께 책을 읽고,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해 ▲책 소개 ▲기억에 남는 구절 나누기 ▲책을 읽으며 느낀 감정 나누기 ▲모임을 통해 새롭게 하게 된 생각 나누기 등을 진행한다.

2021년부터 3년째 복합종에 참여하고 있는 영상의학팀 조아영 사원은 "책을 읽으며 혼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상을 독서모임에서 접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다. 특히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과 만나 교류할 수 있어 더욱 즐겁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김호원 교수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서모임도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감정 ▲훈육 ▲학습 ▲사회성을 주제로 한 책을 읽은 뒤 월 1회 열리는 독서모임에서 감상을 공유한다. 또한 김 교수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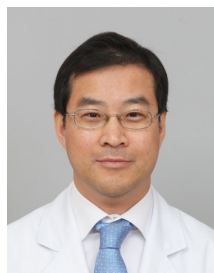
염증성 장질환 심포지엄



염증성 장질환 센터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1회 염증성 장질환 센터 심포지엄이 8월 27일 동관 대강당과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염증성 장질환의 전형적·비전형적 내시경 소견 및 초기병변 관리 전략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의 감량 및 중단 전략의 필요성 ▲피하 생물학제제의 임상 활용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세션을 별도로 마련해 유용한 임상 지침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선주 교수 국책과제 연구비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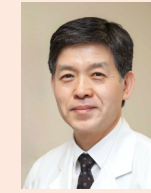
정선주 교수

우리 병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한국연구재단의 국책사업인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해 치매 질환의 예측, 진단, 치료를 가속화하는 디지털 바이오 선도 기술을 개발하며, 신경과 정선주 교수가 임상연구

구책임자를 맡는다. 이번 연구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진행되며 총 8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정선주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멀티오믹스 기반 파킨슨병 정밀 진단 및 질환 진행 예측 인자 개발' 사업에도 선정됐다. 4년간 총 10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퇴행성 뇌 질환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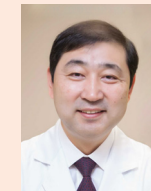
고윤석 교수 서울특별시의회 저술상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가 8월 24일 제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저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 교수는 「죽음학 교실(삶의 마무리에 대한 의로 이야기)」이라는 책을 출간해 이 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9월 3일 열리는 제21차 서울특별시의회 학술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만 교수 일본부인종양학회 명예회원



산부인과 김용만 교수가 최근 일본 시마네에서 열린 제65회 일본부인종양학회 학술회에서 일본부인종양학회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 김 교수는 동아시아 부인종양임상시험학회, 대한부인종양연구회장, 대한비뇨부인과학회 등을 역임하며 한·일 부인종양학 연구와 교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홍규·이우제 교수, 김은희 부교수 최우수논문상



김홍규 교수



이우제 교수



김은희 부교수

건강의학과 김홍규 교수·김은희 부교수, 내분비내과 이우제 교수가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2형 당뇨병 발생을 예측하는 내장지방 면적과 내장지방/피하지방 면적비의 남녀 기준치의 차이'라는 주제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마음이 안전한 스피크 업 / 리슨 업

01

환자 안전을 위해 누구나 Speak Up!



세계 최고 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존스홉킨스 병원의 일화입니다. 병원장이 회의 후 급하게 중환자실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신입 간호사가 병원장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병원장이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장은 물론 모든 의사들은 중환자실에 갈 때마다 손을 씻고 번쩍 들어올리며 "나 손 씻었어요"라고 외치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신입간호사의 용기 있는 Speak Up과 리더의 수용적인 Listen Up이 병원 내 안전한 문화를 만든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병원도 누구나 Speak Up과 Listen Up을 통해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손위생하고 시작할까요?" "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 감염관리실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가 일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Speak Up/Listen Up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36병동 낙상예방포스터 콘테스트



낙상예방포스터 콘테스트에 참여한 어린이병원간호팀 직원들이 자신이 그린 포스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린이병원간호팀 136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실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낙상예방포스터 콘테스트를 최근 진행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의료진과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낙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36병동 간호사 20명이 참여했으며 콘테스트에 출품된 모든 포스터는 병실 출입문과 병동 휴게실에 게시됐다. 고영미 유닛 매니저는 "낙상예방을 위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콘테스트가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심장내과 현준호 조교수

심부전 심근병증 환자가 이식 당일에 수술을 완강히 거부했다. 환자의 딸도 그 뜻을 꺾지 못해 눈물만 흘렸다. 현준호 조교수는 당황스러웠지만 딸부터 차근차근 설득해 결국 환자의 마음까지 돌릴 수 있었다. 이식 수술 후 환자는 한동안 구토와 패혈증에 시달리며 ‘죽을 고생’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은 정상인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외래에서 만난다. “그때의 경험이 제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환자들의 결정권도 존중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끌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도자기를 빚듯이 현 조교수는 심장내과에서도 심장 기능이 가장 떨어진 심부전 환자를 주로 만난다. 숨이 차서 외출이 힘들고 식사도 할 수 없는 환자들은 삶의 질이 엉망인 상태로 심장이식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식받을 때의 컨디션이 이식 후 성적에 매우 중요한 요소여서 현 조교수는 환자 컨디션을 늘 세심하게 살핀다. “감염이라도 생기는 순간 심장마비가 와요. 장 피사로 이식받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사소한 기침이나 허리 통증에도 그 원인을 찾아야 하죠. 그러려면 성실하게 들여다봐야 해요. 제가 보려고 하는 만큼만 보이거든요. 그야말로 도자기를 빚듯이 환자 상태를 하나하나 다듬는 과정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심장이식까지는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 환자만큼 의사에게도 큰 부담이 따른다. “의료진의 수고와 병원 수익만 따지면 환자

분들께 최선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병원은 여러 파트가 긴밀하게 연결된 중증 치료를 통해 의료 수준을 성장시키고 발전해 왔죠. 그러한 가치가 저에겐 자부심이 됩니다.”

심장이식 후 내성균이 발생해 누워만 지내던 환자가 있었다. 회진 때마다 현 조교수가 잠깐씩 재활 동작을 진행했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려 안기다시피 하던 환자가 몇 개월이 지나자 드디어 두 발을 땅에 디딜 수 있었다. “잠깐 창밖의 한강 좀 볼게요. 코 앞에 두고도 참 오랜만에 보는 거죠?”라는 현 조교수의 말에 환자는 시선을 고정한 채로 한참 울었다. “나는 이미 하늘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기와 실패, 그리고 즐거움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학창 시절, 유일한 관심사는 생물 과목 정도였다. 그래서 의대를 지망하자 담임 선생님은 네 성적으로는 못 간다며 흘려 넘겼다. 오기가 발동해 공부를 시작했고 뜻하던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 뒤늦은 학구열은 가속도가 붙었다. 다이내믹한 심장 분야에 관심이 생겨 심장 분야에 강한 우리 병원에 지원했다. 자신만만하던 행보는 내과 전공의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군대부터 다녀와 후배들과 내과 전공의를 시작했지만 잘 따라가지 못하자 식욕이 사라지고 잠도 오지 않았다. 첫 한 달 동안 체중도 10kg가량 줄었다. “크게 무너졌던 경험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약이 됐어요. 나는 별것 아니라는 걸 느끼곤 하나씩 다시 쌓아갔죠.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상태가 워낙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배울 것도 많고 뭔가 쌓이는 게 느껴질수록 뿌듯하더라고요.” 심장내과 중환자실을 맡는 동안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퇴근도 미루고 환자 옆을 지켰다. 교수 회진에선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새로운 걸 발견하면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다. ‘내가 즐거운 일’이기에 밤을 새우고 환자 상태에 따라 마음을 줄여도 상관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끝없는 질문의 답을 찾으며 15년 전, 출산 전·후로 주산기 심근증을 진단받았던 환자가 매우 악화된 상태로 병원에 왔다. 주산기 심근증의 경과가 좋다고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일반적인 검사에선 그 이유를 알기 어려워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비후성 심근증이였다. 심장 이식을 진행하면서 적출된 심장의 조직검사 역시 유전자 검사와 같은 결과였다. “이제는 유전자로 심근증의 원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치료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경과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끔 이식해야 된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분명하면 치료 결정도 명확해질 수 있죠. 앞으로 심장 분야에서 유전적 변이대로 질병을 분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장 이식과 관련한 연구가 워낙 적고 수행도 쉽지 않아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것도 많다. “제 욕심은 분명해요. 진료를 잘 보고,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진료를 마치면 환자에게 더 친절하게 공감해 줄 수는 없었나 자책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선 부족함도 있지만 환자분들께 치료 실력만큼은 신뢰를 드리고 싶어요.”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생체 내 시공간 분석하는 광학영상 연구

광학영상분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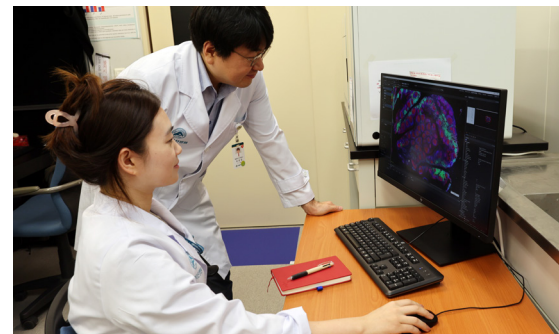
광학영상 기술은 차세대 10대 핵심 산업기술로 선정된 바 있으며 향후 임상 응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학영상분석실은 암 조기진단, 항암효과 모니터링, 염증성 질환, 대사성 질환 등 여러 연구 영역에서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광을 이용한 세포, 소동물, 조직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광학영상의 특성으로 시간과 공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중개연구를 위한 지원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항암제의 효능 평가를 통해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초기 신약 개발에서 대량으로 소동물 종양 모델을 이용해 유효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항암제 저항성 세포, 다양한 변이 세포주에 루시페라아제(발광 효소)를 도입하고 기질을 투여하면 발광 이미징이 가능하다. 생체내 종양이 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항암제를 투여해 치료 과정 중 연속적으로 발광 세기를 측정하며 치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항암유효성평가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신약을 평가하고 있으며 발광 이미징이 중요한 평가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발된 약물의 체내 분포를 알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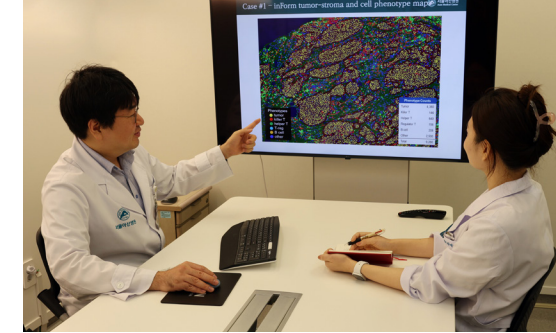
최근 약물은 항체, 세포, 단백질, 엑소좀, 박테리아 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생체내 분포는 중요한 평가 지표로 알려져 있다. 광학영상을 이용한 형광 표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초기 생체내 분포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광학영상분석실은 약물별 최적화된 형광표지법으로 표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박테리아나 엑소좀은 기존 형광 표지법보다 진보된 방법으로 지원해 국내 신약 개발회사들의 평가를 수행했고 FDA에 평가법을 포함하여 임상시험 허가를 통과했다.



융합연구지원센터 박세영 연구원과 김상엽 책임중개의과학자(앞쪽부터)가 Multiplex IHC 조직 염색과 스캔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을 이용해 다중 면역형광법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조직 염색은 공간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정량화 분석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학영상분석실은 국내 최초로 공간생물학 기술인 다중 면역형광법(multiplex IHC)을 도입했으며 많은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 논문을 발간했다. 종양내과 A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담도암에서 면역 모니터링을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간했고 대한암학회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융합연구지원센터 김상엽 책임중개의과학자(왼쪽)와 박세영 연구원이 multiplex IHC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융합연구지원센터 박세영 연구원이 종양 소동물에서 형광표지 약물의 생체 분포 형광 이미징을 수행하고 있다.

광학영상은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법이다. 그러나 실험 디자인이나 얻어진 결과가 광표백, 자가형광 등으로 분석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학영상분석실은 연구 진행 전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실험을 디자인하고 도출된 결과 분석을 도와주고 있다.

광학영상분석실은 세포 이미지를 2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획득해 세포 이동, 세포 사멸 등의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FRET(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기술을 이용해 세포내 신호기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물에 대한 연속적인 반응과 시공간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동물 수준의 광학영상에서는 생물발광 이미징과 형광 이미징을 지원하고 있다. 생물발광 이미징은 암세포의 생체내 성장을 모니터링해 항암 효능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형광 이미징은 단백질 약물에 형광을 표지해 생체 분포나 종양 타겟에 대한 연구 등에 사용된다. 조직 수준의 광학영상은 다중 면역형광법 기술을 이용해 다중마커 분석과 면역세포 프로파일링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조직염색에서 자가형광 문제와 항체의 제한성으로 염색과 분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지만 광학영상분석실은 이 단점을 극복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냈다. 광학영상분석실은 다중 면역형광법 분야에서 누적된 노하우와 연구 성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많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광학영상분석실은 다중 면역형광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hyper-plex IF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형광을 이용한 digital ELISA 기술과 자가항체 분석법을 연구하고 있다. 형광을 이용한 중개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원내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광학영상분석실

- 책임교수 : 융합연구지원센터 김상엽 책임중개의과학자
- 담당연구원 : 융합연구지원센터 박세영·유연미 연구원
- 위치 : 교육연구관 6층 바이오이미징센터
- 연구 지원 서비스
 - 소동물 형광 이미징, 발광 이미징, 실시간 세포 이미징
 - FRET 이미징을 이용한 신호기전 모니터링, 면역 모니터링
 - multiplex IHC 연구 지원
 - 신약 생체 분포 분석 지원, 형광 표지 지원

※ 융합연구지원센터는 연구 고도화와 전문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러 코어랩을 구성했습니다. 각각 전문화된 코어 기술의 효율적 운용은 우리 병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슬기로운 연구생활' 코너에서는 융합연구지원센터가 원내·외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병원에서 실력 쌓아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 되고 싶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모하메드 가지 펠렘반 임상강사



(왼쪽부터) 정형외과 김지완 교수와 모하메드 가지 펠렘반 임상강사.

모하메드 가지 펠렘반 임상강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는 킹 파하드 국군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우리 병원 정형외과 김지완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모하메드 가지 펠렘반 임상강사를 만나 우리 병원에서의 연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실>

서울아산병원으로 연수를 온 이유는

서울아산병원은 대한민국 최고 병원으로 꼽히고 연수 프로그램 역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이 발표한 양질의 논문들을 자주 접했고, 앞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동료들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곳에서 연수할 기회를 얻게 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관절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김지완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수 소감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계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관절 수술에 대한 경험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팀 전체가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잘 적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지완 교수님이 탄탄한

인상깊었던 점은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술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연수를 마칠 쯤에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출입, 접수, 수납 등 모든 과정이 키오스크와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고 진료와 수술 시에는 첨단 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술 방법과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한 모든 팀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환자들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상 깊었고,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며 의료 질을 높여나가는 것 역시 놀라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실에서 김지완 교수(왼쪽)와 함께 기념촬영.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아직 한국어로 말하는 게 익숙지 않지만 모두가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주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의학자들과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남이섬, 부산, 제주도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기 때문에 스키와 바이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한국 음식도 아주 맛있지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음식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 다시 주문하기가 어렵습니다.(웃음) 유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김지완 교수님을 비롯한 팀원들,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모하메드 가지 펠렘반 임상강사.



지난 겨울 스키장에 간 모하메드 가지 펠렘반 임상강사.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드닝 : 정원 가꾸기 ①

정원을 가꾸는 데서 얻는 이익



병리과 김지훈 교수

최근 들어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인생의 2막을 설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기도 한다. 아마도 회색빛 도심 생활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혁명에서 출발한 도시화로 인해 일상생활은 편해졌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청정한 대자연이 얼마나 큰 이익을 주고 있었는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주변 환경에서 채취한 시료로 미생물을 분석하는 학문을 메타제노믹스(metagenomics)라고 하는데, 그 연구들에 따르면 도심과 청정한 자연은 세균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청정한 자연환경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들은 그러한 환경 조건에서 인간에게 유해한 박테리아를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우리가 늘 마시는 물도 다 같은 물이 아니다. 수도물은 유해한 박테리아의 밀도를 기준치 이하로 줄이고 염소로 활성을 일시적으로 눌러놨을 뿐이지만, 청정지역의 샘물은 유익한 박테리아로 가득 차있다. 물을 그릇에 떠 놓고 방치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수도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미끈한 물때가 생기고 뿌옇게 혼탁해지지만 샘물은 물때가 전혀 생기지 않고 맑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청정한 자연은 사람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가까이하면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게 된다.

구태여 과학 지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청정한 자연에 노출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을 체험할 수 있다. 생명체는 자기 몸에 좋은 것들을 직감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민들이 주말만 되면 몇 시간의 교통 정체를 무릅쓰고서라도 산과 들로 향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청정한 자연을 내 집에 연출한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잘 가꾼 정원은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 능력이 있다. 답석증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 실험군은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병실에서, 대조군은 도시의 주차장이 보이는 병실에서 수술 후 회복기를 보내게 했다. 여러 건강 지표의 회복 속도가 정원이 보이는 병실에 있던 환자들에서 두 배 가까이 빨랐다. 이처럼 잘 조성되고 관리된 정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정원을 가꾸면서 얻는 또 다른 이익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며 생동하는 자연을 보고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날씨에 적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과거에 비해 건축 자재와 기법이 발전하고 냉난방에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실내 온도는 22℃~26℃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야외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었다. 그래서인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고 생활한다. 큰 맘먹고 나들이를 가야 자연의 모습을 잠깐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바깥과 통해 있는 대청마루, 문종이 두 장으로 된 문, 그리고 나무와 흙으로 된 벽으로 늘 외부와 소통하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과는 매우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과거에 비해 생활은 좀 편해졌겠지만 변화하는 날씨에 적응하는 능력이 쇠퇴하고 대자연과 교류할 기회를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의학의 발전으



필자가 조성한 루프탑 정원의 모습. 왼쪽부터 봄, 여름, 겨울.

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옛사람들에 비해 면역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어 암,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훨씬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원이라도 가꾸보면 어떨까. 입춘 절기에는 아직 찬 공기 속에서도 길어진 낮, 높아진 남풍고도 덕분에 매화의 꽃망울과 조팝나무의 새순을 볼 수 있고, 채송화와 나팔꽃이 피는 것을 보며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다(사진).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만든 정원에서 농약 없이 식물을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잊고 지냈던 꿀벌, 무당벌레, 메뚜기, 땅강아지 등 반가운 손님도 만날 수 있다.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자연 학습의 기회를 선사하는 것이다. 퇴직 후 집에 머무는 분들에게는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정원을 손질하며 건강하게 소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그야말로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도심에는 옥상 바닥이 평평한 가옥이나 빌딩이 많다. 이 경우 여름철 천장으로부터 상당한 복사열이 옥상 바로 아래 층으로 내려온다. 경사지붕을 올려 천장과 지붕 사이의 삼각형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이런 슬래브 평지붕 구조를 채택한 경우 낮동안 달궈진 콘크리트의 열기가 바로 실내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럴 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고 잔디로 피복을 해 놓으면 잔디가 태양에너지를 다 흡수하므로 여름 한낮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창문을 닫아두면 실내가 오히려 더 시원한 신기한 현상을 체험할 수 있다. 옥상에 올라가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잔디를 구경하며 햇볕을 좀 쬐 뒤 실내로 내려오면 원두막 그늘로 들어온 것처럼 시원하니, 그야말로 여름이 기다려질 것이다.

반려동물 못지않게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자연에서는 식물들이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듯 인간 또한 식물에 의지해 살아간다. 아파트 빌딩 숲에 오래 적응하며 살다 보니 이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식물을 더 찾게 되는지도 모른다. 다음 편에서는 반려식물, 특히 야외에서 직사광선을 받으며 서식하는 식물들을 키우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 ‘이야기가 있는 산책’ 코너는 필자의 전공 분야와 인접한 주제 또는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온 분야를 산책하듯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필자로 병리과 김지훈 교수가 가드닝(정원 가꾸기)을 주제로 4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하기 위해 걷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산책’처럼 이 코너를 통해 마음의 휴식과 건강을 챙기길 바랍니다.
※ 김지훈 교수는 2009년부터 병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화기 병리 판독 및 암유전체 진단을 전공하고 있다. 우리 병원 불자들의 모임인 범우회 회장으로서 병원 법당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와 직원들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고 그 경험을 나누길 희망한다.

단한 사람에게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

운영지원팀 구회정 과장



“
임종을 앞둔 암환자를 보면서 의미 있는
마지막을 고민하게 됐죠.

호스피스 전문 간호의 꿈

종양내과 간호사로 입사해 라포가 형성된 환자의 힘겨운 임종 과정을 보게 됐다. 동공이 부어 눈도 감기지 않고 온몸에서 진물이 흘러나왔다. 엄지발가락에 라인을 잡으며 본 환자의 모습은 처음과 크게 달랐다. '이렇게 죽어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다. 대학원에 진학해 호스피스 간호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포기하고 싶은 고비도 찾아왔다. 그 시기를 버티자 삶이 새롭게 보이고 일상의 태도도 달라져 있었다. 양윤정 차장과 함께 2012년부터 임종을 앞둔 암환자와의 호스피스 상담을 시작했다. 암환자의 생리는 잘 알던 터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신체적·감정적 부분을 살뜰히 챙길 수 있었다. 명확한 표현으로 진중하게 말하려고 애쓰면서 '어차피' '이미' '잘될 거예요' 등 무의미한 말들은 자연스럽게 거르게 됐다.



구회정 과장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회정 과장이 담당 환자에게 오늘의 컨디션을 묻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
누구도 가보지 않은 캄캄한 상황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문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의식이 명료하지 않던 환자가 주말이 지나 찾아가니 핸드폰을 보고 있다. "아버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산책도 가능하겠어요!" 한껏 들뜬 인사는 임종기 환자를 돌보며 매일 노심초사하는 보호자에게도 격려의 메시지가 된다. 진료과에서 완화의료팀에 의뢰한 15명 내외의 환자 라운딩을 이어가며 힘든 부분을 듣고 감정을 돌본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나 임종 과정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없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더 이상 완치를 위한 치료가 무의미해진 환자들은 완화를 위한 치료로 방향이 달라진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완화의료팀은 철저히 '오늘'에 집중한다. 신체적 증상 조절을 최우선으로 한정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쓴다.

“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죠.
다행히 내일이 오면 소중한 하루가 쌓이는 거예요.

오늘이 있는 삶

직원의 부모님을 종종 의뢰받는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낌 없이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라고 당부하는데,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만나면 다들 눈시울을 붉히며 말한다. "시간이 더 있을 줄 알고 못 한 말이 너무 많아요." 한정된 시간임을 잘 알기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한발 앞서 안내하고, 운영지원팀 윤혜원 팀장과 상의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해 나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호스피스 병원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활동이다. 병원 곳곳의 사인을 찍고 어떤 의료적 처치가 가능한지, 그곳 의료진에게 우리 환자들을 부탁하고 돌아온다. 확신을 갖고 병원을 추천해야 환자들도 안심하게 된다. 그곳에서 잘 지낸다고, 혹은 잘 지내다가 편안하게 임종했다는 연락을 받을 때면 보람도 느낀다. 결말을 바꿀 수는 없어도 준비된 이별 과정에서 누구도 혼자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이다. 임종 환자의 가족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완화의료팀에서 보낸 사별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누군가 여전히 남편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과연 좋은 기억이 있을까 조심스러운 때가 많지만 또 한 번 다짐한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 주저 없이 시도할 것이다.



완화의료팀이 환자 상태를 논의 중인 모습.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양윤정 차장, 구회정 과장, 이영석 임상강사, 엄성범 사회복지사.

“
처음엔 저승사자 보듯 했지만 지금은
삶의 질을 높여줄 파트너로 받아들이세요.

인식의 변화

업무를 막 시작한 무렵, 의료진의 의뢰를 받아 병동에 가자 환자 어머니가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안 돼요, 안돼~"라면서 울기 시작했다. 격렬한 거부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때라 '호스피스 판매원'으로 불린 적도 있었다. 2017년부터 종양내과 서세영 조교수가 합류하면서 증상 완화 조치를 상의하기 수월해졌고 엄성범 사회복지사가 환자들에게 다양한 지원 체계를 안내했다. 호스피스 병원과의 연계 작업은 진료협력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 진행될수록 원내 의료진과 환자들의 인식은 점차 개선됐다. 암 치료 계획이 더 이상 무의미해 난감해하던 암환자와 가족들은 완화의료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임종기 환자들을 대하는 의료진들의 어려움과 부담을 자주 듣는다. "꼭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환자가 편안하지 살펴보고 보호자가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임종 과정을 설명해 줄 것을 권고한다. 혹여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가 없도록 의료진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처음 온 환자에게 교육 자료와 개인위생용품 등이 담긴 키트를 증정하고 있다. 키트는 '소중한 추억, 의미 있는 여행' 콘셉트의 여행가방 모양으로 제작됐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최소 훈련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숨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잡(job)·담(談)' 코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를 활용한 파킨슨병 경과 예측



신경과 조성양 임상전임강사

신경과 조성양 임상전임강사는 2023년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파킨슨병에서 진단 및 경과 예측 인자로서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 의의'를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이 연구는 아직 경과 예측 지표가 부족한 파킨슨병에서 말초 혈액의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를 경과 예측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운동능력 저하, 떨림과 같은 운동증상과 치매, 우울감, 수면장애 같은 비운동증상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악화된다. 파킨슨병의 운동증상과 비운동증상의 진행속도는 환자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만 아직 경과 예측이 가능한 지표가 부족하다. 최근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가 치매, 뇌졸중 등의 신경학적 질환의 경과 예측 인자로 제시된 바 있다.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 복제수가 파킨슨병의 경과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되어 파킨슨병의 중증도, 운동, 치매 증상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내고자 했다.

얻어낼 수 있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파킨슨병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증상 변화를 지켜본 결과, 파킨슨병이 치매로 진행되는 환자들은 진단 초기부터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가 낮았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가 파킨슨병 발병 초기에 앞으로 발생할 치매 증상의 경과 예측이 가능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신경과 정선주 교수, 병리과 성창욱 교수, 오지혜 박사와 공동으로 진행해 온 선행 연구를 근거로 405명의 파킨슨병 환자와 200명의 정상인에게 전장유전체분석을 시행한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를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가 파킨슨병 운동 중증도 및 치매 발병에 영향을 준 기전을 찾기 위해 파킨슨병 환자의 뇌 조직 내의 각 부위별로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DNA는 단일지표여서 예측력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아 다른 지표들과 통합했을 때 질병 진행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연구해 보고 싶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시 찾은 웃음



암병원간호1팀 여현정 과장



2021년 어느 겨울날, 소아혈액종양 무균실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두 번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7살 환아가 이식편대숙주병이 피부에 발생해 전신 드레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무균실에 도착하자 내가 상처드레싱을 할 것을 알았는지 환아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진통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어 진정제까지 투여한 뒤 조금씩 드레싱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가며 벗겨진 피부의 감염 예방을 위해 꼼꼼히 드레싱을 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환아가 계속 울어서 쓰러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드레싱이 끝나고 통증이 호전되니 한한 웃음과 함께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었다. 환아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고 그 후로 2주간 환자의 드레싱을 맡았다. 현지(가명)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어느 날 드레싱을 받던 현지는 "엄마, 내가 이렇게 아파서 미안해"라고 말했고 그 순간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기 시작했다. '내가 만약 어머니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나는 현지의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지 어머니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며 어떤 치료인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드레싱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상처가 치유되는지에 대해 설명했고 어머니는 번역기 어플을 사용하며 그동안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았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드레싱을 할 시간이 되면 미리 주변 정리를 하고 나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현지의 피부가 조금씩 재생피화 되면서 1시간 내내 병실에 울려 퍼지던 울음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대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현지는 그 나이 또래 어느 아이들처럼 핑크색과 공주드레스를 좋아했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 아이였다. 피부가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자 현지는 드레싱할 때 사진을 찍어 보여달라고 하며 치료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재생피화가 된 부분과 덜 된 부분을 보여주며 왜 아픈지를 설명해주면 현지는 잘 이해했고 팔을 들어주는 등 의료진에게 협조하기 시작했다. 현지와 만난 지 2주째 되던 날 드레싱을 제거하자 뽀얗게 재생피화 된 피부가 드러났다. 오랜 기간 손 부위도 드레싱을 하면서 글씨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현지는 작은 손편지를 수줍어하며 건넸다. '저도 나중에 크면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균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현지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나와 의 만남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줘서 너무나 고맙다.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매순간 고민하곤 한다. 그런 내 마음을 일곱 살 아이가 이해해주었다는 생각에 놀랍기도 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다. 지금처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 옆에 계속 남고 싶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변화로 인한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 줄이기



건강의학과 안명희 임상전임강사

적응 장애는 입사 직후, 부서 이동, 승진, 이혼, 가까운 사람의 죽음, 질병 등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황적 변화를 계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살면서 흔히 겪지 않는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의 일이라는 것에서 적응 장애와 스트레스원(stressor)이 차이가 납니다. 주로 우울, 불안, 불면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며 진단에 특정한 증상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반응이 포함됩니다. 질병의 범주와 정상적인 반응의 경계선상에 있는 질환이라 아증후군 수준(subsyndromal level)의 증상을 보일 때도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잘 적응하고 견딜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수가 선호하는 과, 부서의 업무가 나에게도 잘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만하게 적응하고 넘어간다면 자신의 힘든 점을 주변에 털어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나'라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라면 불편하지만 그럭저럭 일상 기능을 유지해 나갑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넘어 심리적 고통과 함께 업무 성과, 성취의 저하와 같이 개인의 기능 수준 변화가 동반된다면 정신의학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선 스트레스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려 해보고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처음 환경 변화가 생기면 스스로에게 100일 정도는 적응할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적인 수준으로 잘 적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처음부터 무리해서 노력하며 애쓰다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수행 능력을 유지하며 3개월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으로 놓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적응 문제가 지속된다면 현재의 상황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한 이해, 부적응적인 행동의 변화, 적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대처 방식 논의 등을 위한 정신과적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반응 개선 및 수면 조절 등을 목적으로 투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과의 집단 상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지기에서도 신입 직원, 복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적응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DSM 정신장애 진단 기준에 따르면 적응 장애는 3개월 이내에 확인 가능한 원인이 분명하게 있으며 유발 사건이 발생한 후 시작되어 사건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사라진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속되는 질병이라기보다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회복되는 상태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기능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덜 고통스럽게 현 상황을 대처해 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안명희 임상전임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맞습니다. 직원들의 크고 작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마음건강노트' 코너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상시험센터

심효희 연구코디네이터입니다



“환자 치료법 개발하는 임상연구 관리... CRA로서 책임감과 보람 느껴요”

맡고 있는 업무는 저는 임상연구가 법과 표준작업지침에 따라 잘 수행되는지 관리하는 임상연구 모니터요원(CRA, Clinical Research Associate)입니다. 한 임상연구당 5~7개의 병원을 배정받아 길게는 5년에 걸쳐 연구를 관리하면서 연구 대상자의 권리 보호와 과학적 자료 생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최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 기관인 인천 가천대길병원과 부산 해운대백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연구책임자와 연구간호사 선생님들과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연구 마무리 절차에 도움을 주었는데 연구 관리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연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암, 내분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여러 기관들의 다양한 EMR시스템과 표준작업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엑셀로 해당 기관들의 특징을 정리하거나 동료들과 중요한 사항은 서로 공유하고 상기시키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배님들이 정리해놓은 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장점은 제 장점은 꼼꼼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중해서 끝까지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CRA는 임상시험계획서나 표준작업지침을 준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 장점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일상은 러닝을 즐겨 합니다. 하프마라톤까지 완주를 해봤고 앞으로 풀코스에 도전해서 4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밖으로 나가 꾸준히 달리면서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마음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달리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모든 연구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소중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동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서 저도 후배들에게 기꺼이 지식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이모저모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하계 아시안게임이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다. 당초 2022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되어 올해 열리게 됐다. 알아두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편집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궁금해

공식 명칭

제19회 아시안게임
(Hangzhou 2022 Asian Games)



19th Asian Games
Hangzhou 2022

대회 개최는 1년 연기됐지만 대회 이름에 들어가는 연도는 당초 개최 연도인 '2022'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음 아시안게임은 연기 없이 2026년에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정상 개최된다.

경기 종목

총 40개 종목, 61개 세부 종목, 총 482개 금메달

우리나라 대표팀은 금메달 50개를 획득해 2018년 달성한 종합 3위에 다시 오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참가 규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국,
선수 약 1만 3,000명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역대 최대 규모인 1,18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마스코트

천천, 총총, 렌렌

모두 개최지인 항저우를 상징한다. '천천'은 중국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대운하에 놓인 다리의 명칭이다. '총총'은 신석기 시대 유적인 랑주 문화 유적을 상징한다. '렌렌'은 항저우의 아름다운 호수 서호의 연꽃잎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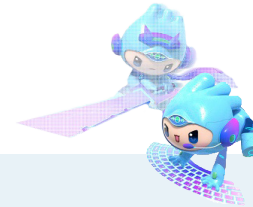


천천

총총

렌렌

항저우에서 만나는 이색 종목



e스포츠

2018년 시범 종목으로 도입된 후 이번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아시아의 e스포츠 팬이 5억 명이 넘는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7개 세부 종목 중 ▲리그 오브 레전드(LOL)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파이터 V ▲FIFA 온라인 4 등 4개 종목에 출전한다. 2018년에 획득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한다.



브레이킹

이번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기술·다양성(신체적 능력) ▲수행력·음악성(해석적 능력) ▲창의성·독창성(예술적 능력) 등의 6가지 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승리한다. 전 세계에서 브레이킹 최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는 남자부와 여자부 모두에서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한다.



보드게임

아시안게임에서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바둑 ▲체스 ▲상치(중국식 장기) ▲콘트랙트 브리지 등 총 4개의 세부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바둑은 13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바둑 종목 금메달을 모두 획득한 자력이 있다. 남, 여 단체전과 남자 개인전 등 총 3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미있는 아시안게임 이야기



3위를 했는데도 동메달을 못 받을 수 있다?

아시안게임에는 한 종목에서 한 나라가 금, 은, 동메달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1998년 방콕 대회부터 적용되어 온 규정으로, 최종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같은 국적인 경우 3위를 기록한 선수 대신 다른 국적 선수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가 동메달을 받는다. 실제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우리나라가 1, 2, 3위를 기록해 3위 선수가 메달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나이가 많으면 참가할 수 없는 종목이 있다?

축구의 경우 1998년 방콕 대회까지는 연령 제한 없이 아시아 최강 자리를 두고 겨뤘다. 그러나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아시안컵의 권위를 살리기 위한 경기 차별화의 일환으로 2002년 대회부터 남자 축구의 연령 제한을 '23세 이하로 설정했다. 이번 항저우 대회는 코로나19로 1년 늦게 열리는 탓에 연령 제한도 1년 조정돼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가 아니어도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다?

OCA는 2019년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아시안게임에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호주가 AFC의 일원이 되고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등 아시아대회 출전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 됐다. 초청국 선수들의 기록은 공식 순위에 집계되지 않으며 3위 안에 들더라도 메달을 받지 못한다. 아쉽게도 지난해 호주와 뉴질랜드가 코로나19로 불참을 결정해 초청국과의 경기는 다음 대회로 미루게 됐다.

※자료 출처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공식 홈페이지, 항저우 아시안게임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스포츠.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포천 관인보건지소 의료봉사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암병원간호1팀 이소연 주임 암병원간호2팀 이재은 사원 외과간호2팀 조서진 사원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들어올 때 어르신들의 표정은 다양했지만, 헤어질 때는 모두 고마움을 표하며 대으로 향하셨다. 누군가를 위해 하루를 보냈다는 것, 우리의 직업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봉사를 통해 우리의 지친 마음이 더 치유된 하루였다.

경기도 포천시 관인보건지소에는 아침 일찍부터 우리 병원 의료봉사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다. 대부분 7~80대 어르신들이었다. 우리 병원에 이미 오래 전부터 진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였는데 전에 내원하셨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현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어르신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 병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며 나중에 내원하시면 우리로 인해 좋은 경험을 드리도록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 서로 다른 병동에서 일하는 우리는 손발을 처음 맞춰보는 터라 진행이 일부 미숙했지만 어르신들은 차분히 기다려 주셨다. 오히려 "선생님 고마워요"라며 우리를 격려해 주신 덕분에 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의료봉사는 의료인이기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베품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 하루만으로 어르신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의 하루를 내어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시간이었다.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은 사원

※ 우리 병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에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에서는 봉사활동을 다녀온 직원들의 따뜻한 경험을 나눕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환자가 열이 나서 noti했는데 읍저하라고 하시네요." 병동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 ' noti'와 ' 읍저'는 각각 'notify(알리다)' 'observe(관찰하다)'의 준말일 텐데, 존각을 다루는 의료 현장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이지만 ' 읍저'만큼은 제대로 쓰자. 환자를 관찰하며 상태를 주의 깊게 지켜볼 때는 'monitor'가 더 정확하다.

읍저하세요

☹️ observe
😊 monitor

Let's Talk

A The patient's temperature is 38°C.
환자 체온이 38도예요.

B It looks like he has a fever, but it's not too high.
Let's keep monitoring him.
열이 있지만 아주 고열은 아니군요. 주의 깊게 지켜봅시다.

올해만큼 무더운 여름이 있을까 싶는데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는 경고가 들린다. 펄펄 끓는 지구, 앞으로 더 길고 더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라는 뜻일 것이다. '덥다'는 영어로 뭘까? 머릿속 번역기는 'hot'을 외치겠지만 'warm'이다. 'hot'은 "Do you feel hot(열이 있나요)?"처럼 '열이 나다'라는 뜻이다. "덥나요?"는 "Do you feel warm?"이라고 하자.

덥나요?

☹️ Do you feel hot?
😊 Do you feel warm?

Let's Talk

A You look flushed. Do you feel warm?
얼굴이 발그레해요. 더우신가요?

B Yeah. I just came from the gym.
네. 운동하고 왔어요.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에 정작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를 통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공유합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외과간호팀 김혜자 사원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 환자 마음 헤아리는 공감과 소통'을 잘 읽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간호를 하려 노력하는 선생님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한편으로 유방암 투병 중인 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있는 친구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즐겁고 좋은 일들만 생길 거야"

진단검사의학팀 윤경아 대리

'문화·생활정보 - 일상 속 작은 실천, 제로웨이스트' 코너 내용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정말 심각하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5R'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암병원간호2팀 이기연 사원

키르기스스탄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온 소식을 잘 읽었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한 의료봉사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봉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서울아산병원의 일원으로서 저도 기쁨과 보람을 함께 느낍니다.

약제팀 조아람 사원

'잡·담 - 안전한 약물 사용, 전문약사가 도와드립니다'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약사지만 전문약사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보람을 느끼고 어떤 고충을 겪는지 잘 몰랐어요. 우리 병원 직원들의 근무 현장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지원팀 이은성 연구코디네이터

'여름특집 - 엔데믹 첫 여름, 당신의 피서법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 병원 동료들의 여름 나기 노하우를 사진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계곡 물멍, 시원한 미술관과 도서관, 가족과 함께 먹는 수박화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내년 여름이 찾아오면 하나씩 해봐야겠습니다!^^

지나호 정답

제706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여름특집 - 엔데믹 첫 여름, 당신의 피서법은?'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임상시험센터 심희희 연구코디네이터가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